

‘명품’ 고흥 유자, 유럽시장 공략 나섰다

郡, 체코·이탈리아 등과 190만 달러 수출 협약 체결
송귀근 군수 단장 ‘농수산물 수출 촉진단’ 구성 눈길

고흥군이 지역 명품 특산물인 유자 수출을 위해 체코와 이탈리아 등 유럽시장 공략에 나섰다.
고흥군은 18일 “최근 송귀근 군수를 단장으로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 촉진단’을 구성해 유자 수출을 위한 유럽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 촉진단’은 최근 체코에서 크로스 카페(Croscafe)사 등 2

개사와 미화 80만 달러, 이탈리아에서는 에세필(Essefil) SRL사 등 2개사와 미화 110만 달러를 협약하는 등 총 190만 달러(23억원)의 유자상품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또한 이탈리아 ‘산비토로 까포’ 시(市)에서 현지 유통업자(벤더) 10여명을 초청해 고흥 유자상품 설명회를 진행했고 유자 음료와 유자 칵테일 등을 만들어 현

지인 1천500여명에게 무료 시음토록 하는 판촉행사를 추진했다.
유자 판촉행사장에는 ‘산비토로 까포’ 시(市)의 가우세페 페리아노 시장이 방문해 행사 요원들을 격려하고 송귀근 군수와 면담 시간을 가진 후 양 시군 홈페이지에 관광 정보를 링크하기로 합의했다.
현지 언론에서는 송귀근 군수 인터뷰와 유자 홍보 행사장을 취재해 기획기사를 게재하는 등 고흥 유자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 음료 제조업과 식품유통업을 하는 로보쉬 마르

티넥(Lubos Martinek) 크로스카페 대표는 “고흥 유자는 매우 독특한 맛과 향을 갖고 있어 유자 맥주, 유자 커피, 유자 케익 등의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체코 국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군수는 체코와 이탈리아에 이어 터키와 유럽의 다른 국가에도 고흥 유자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바이어를 발굴하는 등 유럽시장 확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수가 농수산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촉진단 단장을 맡아 직접 해외에 나가 수입업원



의 수출협약을 체결한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라며 “유자 가공업체는 물론, 유자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1인당 군민소득 3천만 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민선 7기 들어 고흥 농수특산물 판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최근 농수산물의 내수 부진, 가격하락 등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유통판로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대응전략은 최근 송귀근 군수 행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달 25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고흥 관내 일본 수출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행정적 대응책 마련과 함께 수출 유통망 다변화에도 적극 나서도록 조치했다. /고흥=신용원기자



장성 해바라기 식재 거버넌스 행사 장성군은 지난 16일 오전 7시 황미르랜드에서 해바라기 식재 거버넌스 행사를 갖고 3만3천여㎡(1만 평) 규모의 해바라기 단지를 황미르랜드 내에 조성했다. 이날 행사에는 23개 단체 340여 명의 군민이 참석해 썬리치 골드, 썬리치 풀덴 두 종의 해바라기를 식재했다. 황미르랜드는 황룡강에서 ‘황룡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음 중심지와 인접한데다 너른 부지를 지니고 있어 접근성과 활용성이 뛰어난 곳으로 꼽힌다. /장성군 제공

‘메타프로방스 계획’ 담양군, 대법 최종 승소

“차질없는 사업 추진 통해 성공사례 만들 것”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2013년부터 시작된 소송이 6년 여의 공방 끝에 담양군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담양군은 18일 “담양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사업 2단계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구역 편입 토지의 한 소유자가 담양군수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소송에서 담양군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2013년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2017년 7월 사

임시행자 지정요건 불충족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같은 해 9월 원점에서 재검토한 새로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으나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리며 이번 대법원 결정까지 6년여 간 소송을 진행했다.
원고는 지난 4월 광주고등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불복해 ‘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4일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려 원고측의 의견을 기각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1심과 2심의 판결이유를 보고 급박하

고 주요한 증거나 변동사항이 없을 때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는 사건에 대해 바로 기각을 내리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송 및 토지수용 등으로 유원지 조성사업이 주춤한 상태에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비롯한 토지수용결정(2019년 7월 5일) 등을 토대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정상화의 걸림돌이 해소됐다.
담양군 고병석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소송을 행정서비스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디딤돌로 삼겠다”며 “앞으로 완성될 메타프로방스는 담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지가 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보성군, 딸기 농가 대상
화아분화 검정 서비스

보성군은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딸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안전 조리기재배기술 제공을 위한 화아분화 검정 서비스를 실시한다.
보성딸기는 관내 재배면적 71ha에 총 조수입 200억원 가량 되는 고소득 작목이다. 특히 딸기 가격이 가장 좋은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많은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
딸기는 반드시 화아분화 확인 후 정식해야 조기 수확이 가능한 작목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육묘기 딸기의 화아분화 검정 서비스를 통하여 정식 시기 및 화아분화 촉진 기술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성=임병언기자

여수포럼, 日수출규제 피해 대응 점검

여수포럼(공동위원장 권오봉 여수시장, 박용하 여수상의 회장)은 18일 “오는 20일 오전 11시 30분 지역 유관기관장과 기업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8월 정기 월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수포럼은 집단지성을 활용한 현안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참여기관과 기업체의 현안문제를 공유하고 지역의 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구성된 모임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여수지역 상공인들의 피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공장 신증설이 진행되고 있는 여수국가산단의 행정지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여수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련, 오는 29일 개막하는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제3회 여수음악제’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오는 22일(여수상의 대회의실)과 다음달 4일(여수시청 대회의실) 개최하는 명사초청 강연회에 강연자로 나서는 박형준 전 국회의원총장(동아대 교수)과 전 방송인 김병조(조선대 교수)씨에 대한 소개도 보고된다.
박용하 여수상의 회장은 “여수포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유관기관장과 기업체 대표가 건의된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함께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여수포럼이 지역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슈를 주도하는 생산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포럼은 공동위원장인 여수시장을 포함해 여수지역 주요기관장과 기업체 대표 등 2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격월로 개최된다. /여수=김진선기자

광양제철소 프렌즈봉사단 다문화가정 여름 추억 만들기 행사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다문화가정 여름 추억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내 다문화가족들과 시원한 여름을 보냈다. **〈사진〉**
프렌즈봉사단은 광양 지역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돕는 광양제철소 사내 전문재능봉사단으로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한국 문화체험, 여름 추억 만들기 행사 등을 지원한다.
최근 진행된 여름 추억 만들기 행사를 위해 프렌즈봉사단은 50여 명의 다문화가족을 포스코백운산수련원(옥룡면 소재)으로 초대했다.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들은 안전 교육을 위해 전문가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배운 후 워터슬라이드 타기 등 물놀이를 즐겼다. 또한 가족들이 함께 한국 전통 놀이인 윷놀이와 발차름을 체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광양제철소 프렌즈봉사단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여름 추억 만들기 행사’는 201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광양=허선식기자



장성 전원주택 토지매매

*** 이제 교통이 최고입니다. ***

■ 광주에서 15분
장성 IC ,장성호(댐) 1분 (국도도로 12m접)
■ 최고의 전원주택 / 산새줄음.공기좋은

① 300평 - (평당 80만원) - 매가 2억4천만원(용1억5천)

② 1,080평 - (평당 70만원) - 매가 7억5천만원(용4억5천)

① 장성을 용강리 . 장성댐 옆 (국도도로접함) 1,370평 → 매매가 1억 5천만

② 장성을 덕진리 . 장성댐 위 (도로접함) 500평 → 매매가 2억5천만

③ 장성을 남면 . 첨단지구5분 (도로접함) 1,090평 → 매매가 3억5천만

④ 담양군 금성면 (메타세콰이아부근 도로접) 1,000평 → 매매가 5억

상가 매매 [급매]

■ 복구 문흥동 (6층) 아파트 1만세대 위치 (병원,대형학원,한의원,스포츠,기타적함)

■ 6차선 도로접 코너변 위치

■ 보증금 5천만 월 400만 임대가능

▶ 감정/시세 → 15억

매 가 → 7억 5천

① 상가매매 - 상무지구 메가박스 앞 (7층 중 6층) 보 3천 월 150만(임대가능)▶ 매매가 2억8천만 (용1억4천8백)

② 첨단지구 10층중10층 (상가,사무실) 보 1천 월50만 (임대가능)▶ 매가 8천만 (용 3천만)

③ 원룸매매 (현대아파트 입구 앞)용봉C1분,전대5분 토지 80평 건 165평 (원룸9개,1.5룸6개)보3천 월수익 500만 ▶매가 7억

④ 고시원매매 - 조대 후문 3분 토 79평,건 159평 룸 50개, 월수익 1,000만 예상 ▶ 6억8천만

경매 교육 [기초, 특수전문]

★ 경매교육 특수반 모집★

이제 특수경매만이 큰 수익이 필수있습니다.
(유치권,법정지상권,지분,엔피엘)

※ 10억짜리 부동산을 3억에 가능

경매교육 하면서 (실전) 바로 (수익창출) 합니다.

1. 감정가 2~3회 유찰 물건 (절반가격)

2. 유치권,지분,법지,개발,리모델링

① 초급 실전반 - (기초 +실전) - 무료교육

② 중급 실전반- (기초 +실전 + 특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지분,법지,개발,절반가격)

매주(월, 목, 토) 개강

※ 사무실 쓰면서 전문 직업 하실 분 (책상, 컴퓨터 → 제공 / 주1회 물건분석스터디)

062-382-5500 010-6670-9800

CMYK